

# 한여름 밤 '백두대간 달빛콘서트'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여름휴가·체험명소로 각광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여름휴가 기간 방문객들이 부쩍 증가하는 등 각광받고 있다.

올 여름 휴가기간 동안 달빛영화제, 달빛콘서트, 백두대간물놀이, 반딧불이랑 떠나는 세계 곤충여행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면서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4일 저녁 7시30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제1회 '백두대간 달빛콘서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공연에서는 340여회의 라이브공연 경력이 빛나는 실력

과 싱어송라이터 박강수가 초대되어 한여름 밤에 청량한 포크음악으로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달빛영화제가 열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숙박시설(에코로지, 캠프장, 트리하우스 등)이용객과 많은 관광객들이 밤 하늘을 수놓은 별빛과 함께 스크린속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남원시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한 '반딧불이랑 떠나는 세계곤충여행'이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이언트반딧불이와, 헤라클레스장수풍뎠이, 나

뭇앞대벌레 등 전 세계 14개국 50여종 2,000여마리의 살아있는 다양한 곤충이 전시되어 평일에도 1,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자리 잡은 운봉읍은 판소리 흥판제의 시조인 송흥록 명창의 생가와 국악의 성지,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섬멸한 것을 기념한 황산대첩비지, 허브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허브랜드가 있고, 인근 산내면과 이영면에는 지리산뱀사골계곡, 천년고찰 실상사,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남원야야 고분군이 있어 피서와 역사교육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namwon.go.kr/tour)나 남원시청 산림과 오승배(063-620-57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여름휴가 기간 방문객들이 부쩍 증가하는 등 각광받고 있다.

## 세계유산 고인돌에 자긍심 높은 고창군민 가승유물 기증 이어가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향토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유산 고인돌에 자긍심이 높은 주민들의 향토유물 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최남희(고창읍), 조정호(고창읍), 백원석(부안면), 신연수(부안면)씨가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 소중한 가승유물 12점을 흔쾌히 기증해 애향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증자들은 "선조의 얼이 담긴 유물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며, "고창인들이 고창 땅에서 만들어 남긴 유물들이나만큼 고인돌박물관에서 유물을 잘 보관하고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애향과 유산 보존정신이 넘치는 이들 기증자들이 기증한 유물은 최남희씨 동근비다향아리(삼국시대) 1점, 조정호씨 백자접시(18세기 추정) 1점, 백원석씨 디달방아 돌확 등 민속

자료 7점, 신연수씨 반다지 등 민속자료 3점 등 12점에 달한다.

이들 자료는 5~6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근비다향아리에서부터 조선시대 제작된 백자접시, 그리고 근현대 민속자료 등인데, 고창의 도자기 문화와 생활문화를 증거하는 의미 있는 자료들로서 고인돌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되어 전시 및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물을 접수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 고인돌박물관 관계자는 "고창군민들의 기증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높은 애향정신과 아름다운 기증정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향토유물 기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마한시대 모로비리국의 역사에서부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고창의 문화유산이 하나 둘씩 모여 향토 유물 기증전을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랄 뿐 아니라, 고창고인



돌박물관이 고창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당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름다운 노을이 어우러진 한 여름 밤의 축제 '제2회 모항 썸머 페스티벌'이 오늘 모항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 아름다운 노을이 어우러진 여름 밤의 축제

오늘 밤 모항 썸머 페스티벌 펼쳐

아름다운 노을이 어우러진 한 여름 밤의 축제 '제2회 모항 썸머 페스티벌'이 오늘 모항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오늘 오후 6시부터 9시 30분 까지 3시간 반 동안 진행 되는 "모항 썸머 페스티벌"은 부안 모항 해수욕장 관광지를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가 야심 차게 마련한 행사다.

지난해 제 1회 축제를 성공리 끝나고, 더욱더 알찬 구성으로 2회째를 맞는 이

번 축제에는 '엘로비', '뉴러브썸', '금채연' 등 가수들의 썸머 콘서트 축하공연과 EDM 공연, DJ 댄스 페스티벌 등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 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상연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노을이 아름다운 모항 해수욕장은 여름 밤 축제 장소로 제격"이라며 "이번 축제가 모항해수욕장 고유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내년 5월2일 개막

2019년에 열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일이 확정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는 제20회 전주영화제가 내년 5월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동안 고수한 '영화 표현의 해방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영화제 전통과 역사, 비전을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선보일 계획이다.

또 영화인과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영화제 사무처는 올해 역대 최다관객을 기록하며 호평을 받은 만큼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내년에는 한층 성숙해진 영화제로 선보일 계획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